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김용숙^{1*}

¹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Research 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recognized by childcare teacher

Yong-Sook Kim^{1*}

¹Joong-Bu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으로는 J지역의 재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200명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요구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주요 원인을 부모양육태도로 보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영유아의 발달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eachers' percep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 total of 200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childcare teach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eachers' factors on necessity and difficul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the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attributed the cause of the difficulties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parents' attitudes. Second, there wer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eacher's factors on the content and method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emphasized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related to young children's homes and communities, and reorgan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grams based o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s suggested.

Key Words : Childcare teacher, Young children, Democratic civic education

1. 서론

최근 고시된 '제 2차 표준보육과정'[11]에서는 '어린이 집에서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의미 있는 학습을 통해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육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데 변

함없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고 이를 기본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아동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UN아동권리 협약, 1989). 이를 토대로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영역에서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예절, 사회적 규칙, 합리적 의사결정, 주변사람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구성원으로서의

*Corresponding Author : Yong-Sook Kim

Tel: +82-10-8640-0653 email: yskim82@joongbu.ac.kr

접수일 12년 03월 29일 수정일 (1차 12년 04월 25일, 2차 12년 05월 22일, 3차 12년 06월 25일) 게재확정일 12년 07월 12일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성(citizenship)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한다[22]. 시민성을 함양하고 발휘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이며 정치 지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질적 민주주의까지 포함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시민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영유아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영유아 간 발생하는 갈등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18]. 민주시민교육이란 자기학습, 자기형성의 기회와 개방적인 눈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여 우리 사회의 쟁점들과 관련된 지혜로운 정치, 경제활동 등과 융화할 수 있는 시민들을 기르는 것이다[8].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기본권의 인식과 예절 바르고 책임감 있는 생활습관과 질서외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의 지식 및 기능의 숙달과 참여정신 등을 포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사고과정, 기술, 가치관, 태도 등을 길러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8].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은 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 상당할 정도로 체계적인 시민성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2,13]. 관점과 견해가 다르거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에도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시민성 교육이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며[12,16], 이러한 갈등을 조절, 해결하는 토론문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영유아가 민주사회의 시민성을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시민성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영유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는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인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교사의 전문적 소양이 요구된다. 민주적인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에 온정을 가지고 돌봐주며, 영유아가 적절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성취한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민주적인 교사는 혼육해야 할 상황을 죄의식이나 감정어입과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20],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사의 비지시적인 교수행동, 중재적인 교수행동, 지시적인 교수행동 등의 교사 행동은 유아의 민주시민의식에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6]. 이러한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기조절력, 조망수용능력, 친사회성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19,23]. 이처럼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육적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교육내용 및 방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세계는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일민족에서 이제는 다문화사회로 변모되고, 사회적 구성원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문화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유능성을 지녀야 한다. 영유아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가 다문화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흐름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영아기 부터 요구되고 있으며 영유아를 둘러싼 부모, 교사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아에게도 자신의 선택권이 있으며, 실제 양육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17]. 특히 보육교사는 부모의 역할을 이양 받은 시대적 흐름[3]에 따라 그 역할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20]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영아기부터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사들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특정 지식과 기능의 교육에 치우친 점, 사회적인 요구가 직접적으로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8].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로 유아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7]와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5]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적 관점과 통일사회

지향적인 맥락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통합되는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성을 갖추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데 반영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 J지역의 재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217명을 임의선정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유형은 국공립,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한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었다. 미회수 및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료로 사용된 질문지는 총 200부(92%)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Table 1] A demographic background of research objects

배경변인		N(%)	배경변인		N(%)
근무 경력	3년 이하	70(35.0)	담당 학급	만1	67(33.5)
	4년~6년	109(54.5)		만2	55(27.5)
	7년~9년	19(9.5)		만3	23(11.5)
	10년 이상	2(1.0)		만4	9(4.5)
만5				17(8.5)	
연령	25세~29세	42(21.0)	기관 유형	혼합 연령	29(14.5)
	30세~34세	32(16.0)		민간	94(47.0)
	35세 이상	126(63.0)		가정	77(38.5)
최종 학력	전문대졸	93(46.5)	합계	법인	29(14.5)
	4년대졸	47(23.5)		200(100)	
	대학원졸	3(1.5)			
	보육교사 교육원	54(27.0)			
평생 교육원	3(1.5)				

2.2 연구도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5,7]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사 2인과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 1인이 참여하여 검증과정을 거쳤다.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의 검증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된 설문지 문항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및 어려움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인식의 영역으로 나누어 공통(5문항),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3문항),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3문항),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13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복수응답 문항은 총 4문항이었다. 설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구성
[Table 2] A composition and contents of questionnaire

구분	내용	문 항 수
교사의 일반적 배경	근무경력, 연령, 학력, 담당유아의 연령, 기관의 유형	5
유아 민주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민주시민교육의 지도시 주체적 의 사결정 능력배양의 필요성	3
유아 민주 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문제	3
유아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장소, 적합한 교 육담당자, 영향력 있는 대상, 유아의 적정 연령, 자료수집의 정보원, 필요자원, 민 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덕목, 평가방법, 교수 학습 방법, 교육활동유형, 교육활동 집단구성, 교육활동 일과시간, 활동주제	13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 내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복수응답 문항의 경우에는 복수 체크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빈도분석을 위해 범주형 응답처리를 하였다. 또한 하위 요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의 인식 차이 결과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Table 3]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변인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χ^2	
연령	25세~29세	0(0)	24(57.1)	14(33.3)	4(9.5)	42(100.0)	36.652*** (df=6)		
	30세~34세	0(0)	3(9.4)	4(12.5)	20(62.5)	5(15.6)			32(100.0)
	35세 이상	0(0)	0(0)	47(37.3)	75(59.5)	4(3.2)			126(100.0)
담당연령	만1	0(0)	0(0)	18(26.9)	45(67.2)	4(6.0)	67(100.0)	26.287* (df=15)	
	만2	0(0)	0(0)	25(45.5)	25(45.5)	5(9.1)	55(100.0)		
	만3	0(0)	2(8.7)	9(39.1)	12(52.2)	0(0)	23(100.0)		
	만4	0(0)	0(0)	5(55.6)	4(44.4)	0(0)	9(100.0)		
	만5	0(0)	1(5.9)	6(35.3)	7(41.2)	3(17.6)	17(100.0)		
기관유형	혼합연령	0(0)	0(0)	12(41.4)	16(55.2)	1(3.4)	29(100.0)	12.896* (df=6)	
	민간	0(0)	3(3.2)	37(39.4)	53(56.4)	1(1.1)	94(100.0)		
	가정	0(0)	0(0)	26(33.8)	43(55.8)	8(10.4)	77(100.0)		
기관유형	법인	0(0)	0(0)	12(41.4)	13(44.8)	4(13.8)	29(100.0)		
	합계	0(0)	3(1.5)	75(37.5)	109(54.5)	13(6.5)	200(100.0)		

* $p < .05$, *** $p < .001$

표 3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 109(54.5%)명, 보통임 75(37.5%), 매우 필요함 13(6.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chi^2(6)=36.652, p < .001$]과 담당연령[$\chi^2(15)=26.287, p < .05$], 기관유형[$\chi^2(6)=12.896, p < .05$]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연령과 담당연령, 기관유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민주시민교육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4] Influence on developmen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변인	구분	전혀 영향 없음	별로 영향 없음	보통임	영향 있음	매우 영향 있음	합계	χ^2
근무경력	3년 이하	0(0)	4(5.7)	27(38.6)	23(32.9)	16(22.9)	70(100.0)	23.940** (df=9)
	4년~6년	0(0)	2(1.8)	40(36.7)	58(53.2)	9(8.3)	109(100.0)	
	7년~9년	0(0)	4(21.1)	5(26.3)	7(36.8)	3(15.8)	19(100.0)	
	10년 이상	0(0)	0(0)	1(50.0)	1(50.0)	0(0)	2(100.0)	
연령	25세~29세	0(0)	2(4.8)	23(54.8)	11(26.2)	6(14.3)	42(100.0)	13.814* (df=6)
	30세~34세	0(0)	4(12.5)	9(28.1)	14(43.8)	5(15.6)	32(100.0)	
	35세 이상	0(0)	4(3.2)	41(32.5)	64(50.8)	17(13.5)	126(100.0)	
학력	전문대졸	0(0)	4(4.3)	37(39.8)	40(43.0)	12(12.9)	93(100.0)	21.356* (df=12)
	4년제졸	0(0)	4(8.5)	9(19.1)	21(44.7)	13(27.7)	47(100.0)	
	대학원졸	0(0)	0(0)	0(0)	2(66.7)	1(33.3)	3(100.0)	
	보육교사교육원	0(0)	2(3.7)	26(48.1)	24(44.4)	2(3.7)	54(100.0)	
	평생교육원	0(0)	0(0)	1(33.3)	2(66.7)	0(0)	3(100.0)	
기관유형	민간	0(0)	7(7.4)	31(33.0)	49(52.1)	7(7.4)	94(100.0)	21.700** (df=6)
	가정	0(0)	3(3.9)	32(41.6)	32(41.6)	10(13.0)	77(100.0)	
	법인	0(0)	0(0)	10(34.5)	8(27.6)	11(37.9)	29(100.0)	
합계	0(0)	10(5.0)	73(36.5)	89(44.5)	28(14.0)	200(100.0)		

* $p < .05$, ** $p < .01$

표 4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영향을 미침 89(44.5%)명, 보통임 73(36.5%), 매우 영향을 미침 28(14.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민주시민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chi^2(9)=23.940, p < .01$], 연령[$\chi^2(6)=13.814, p < .05$], 학력[$\chi^2(12)=21.356, p < .05$], 기관유형[$\chi^2(6)=21.700, p < .001$]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58.5%가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유아 지도 시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배양의 필요성

[Table 5] Necessity of independent decision-making ability building when teaching young children with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변인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χ^2
연령	25세~29세	0(0)	0(0)	11(26.2)	22(52.4)	9(21.4)	42(100.0)	20.260** (df=8)
	30세~34세	1(3.1)	1(3.1)	7(21.9)	15(46.9)	8(25.0)	32(100.0)	
	35세 이상	0(0)	1(8)	17(13.5)	95(75.4)	13(10.3)	126(100.0)	
학력	전문대졸	0(0)	0(0)	10(10.8)	74(79.6)	9(9.7)	93(100.0)	34.650** (df=16)
	4년제졸	1(2.1)	0(0)	8(17.0)	26(55.3)	12(25.5)	47(100.0)	
	대학원졸	0(0)	0(0)	0(0)	2(66.7)	1(33.3)	3(100.0)	
	보육교사 교육원	0(0)	2(3.7)	16(29.6)	30(55.6)	6(11.1)	54(100.0)	
	평생 교육원	0(0)	0(0)	1(33.3)	0(0)	2(66.7)	3(100.0)	
	합계	1(0.5)	2(1.0)	35(17.5)	132(66.0)	30(15.0)	200(100.0)	

** $p < .01$

표 5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지도 시 주체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 132(66.0%)명, 보통임 35(17.5%), 매우 필요함 30(15.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지도 시 주체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의 필요성과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chi^2(8)=20.260, p < .01$], 학력[$\chi^2(16)=34.650, p < .01$]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에 있어서 유아 지도 시 주체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2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결과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민주시민에 대한 관심 정도

[Table 6] Degree of interest about democratic citizen

변인	구분	전혀 없음	적은 편임	보통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합계	χ^2
학력	전문대졸	4(4.3)	12(12.9)	48(51.6)	24(25.8)	5(5.4)	93(100.0)	30.444* (df=16)
	4년제졸	1(2.1)	3(6.4)	24(51.1)	17(36.2)	2(4.3)	47(100.0)	
	대학원졸	0(0)	0(0)	0(0)	3(100.0)	0(0)	3(100.0)	
	보육교사 교육원	0(0)	11(20.4)	33(61.1)	9(16.7)	1(1.9)	54(100.0)	
	평생 교육원	1(33.3)	0(0)	2(66.7)	0(0)	0(0)	3(100.0)	
담당 연령	만1	2(3.0)	5(7.5)	36(53.7)	20(29.9)	4(6.0)	67(100.0)	32.480* (df=20)
	만2	2(3.6)	11(20.0)	25(45.5)	15(27.3)	2(3.6)	55(100.0)	
	만3	1(4.3)	0(0)	17(73.9)	3(13.0)	2(8.7)	23(100.0)	
	만4	0(0)	4(44.4)	1(11.1)	4(44.4)	0(0)	9(100.0)	
	만5	1(5.9)	0(0)	12(70.6)	4(23.5)	0(0)	17(100.0)	
	혼합연령	0(0)	6(20.7)	16(55.2)	7(24.1)	0(0)	29(100.0)	
합계	6(3.0)	26(13.0)	107(53.5)	53(26.5)	8(4.0)	200(100.0)		

* $p < .05$

표 6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임 107(53.5%)명, 높은 편임 53(26.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력[$\chi^2(16)=30.444, p < .05$]과 담당연령[$\chi^2(20)=32.480, p < .05$]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학력과 담당연령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 민주시민교육 실시의 시급함

[Table 7] Dispatch of carrying out democratic civic education

변인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시급함	매우 시급함	합계	χ^2
연령	25세~29세	0(0)	0(0)	28(66.7)	10(23.8)	4(9.5)	42(100.0)	19.689** (df=6)
	30세~34세	0(0)	6(18.8)	15(46.9)	8(25.0)	3(9.4)	32(100.0)	
	35세 이상	0(0)	6(4.8)	66(52.4)	50(39.7)	4(3.2)	126(100.0)	
합계	0(0)	12(6.0)	109(54.5)	68(34.0)	11(5.5)	200(100.0)		

** $p < .01$

표 7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 실시의 시급함에 대해 보통임 109(54.5%)명, 시급함 68(34.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민주시민교육 실시의 시급함과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chi^2(6)=36.652, p<.001$]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세 미만의 교사들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35세 이상의 교사들은 시급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8]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Table 8] The reason why democratic civic education doesn't work well

변인	구분	①	②	③	④	합계	χ^2
기관 유형	민간	49 (52.1)	1 (11.7)	4 (4.3)	30 (31.9)	94 (100.0)	14.529 (df=6)
	가정	3 (42.9)	21 (27.3)	3 (3.9)	20 (26.0)	77 (100.0)	
	법인	2 (72.4)	1 (3.4)	1 (3.4)	6 (20.7)	29 (100.0)	
	합계	103 (51.5)	33 (16.5)	8 (4.0)	56 (28.0)	200 (100.0)	

* $p<.05$

- ① 부모의 양육태도
- ②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미흡
- ③ 대중매체의 영향 ④ 현대사회의 풍조

표 8과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 103(51.5%)명, 현대사회의 풍조 56(28.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미흡 33(16.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chi^2(6)=14.529, p<.05$]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있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인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3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결과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장소
[Table 9] Suitable place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구분	N(%)
유아교육기관	32(16.0)
가정	72(36.0)
공공장소	94(47.0)
기타	2(1.0)
합계	200(100.0)

표 9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장소에 대해 공공장소 94(47.0%), 가정 72(36.0%)명, 교육기관 32(16.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일반적인 공공장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교육담당자
[Table 10] An education person who are suitable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구분	N(%)
부모	30(15.0)
보육 교사	2(1.0)
유아교육 전문가	2(1.0)
교사와 부모	65(32.5)
교사, 부모, 전문가	101(50.5)
합계	200(100.0)

표 10과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교육담당자에 대해 교사, 부모, 전문가 101(50.5%), 교사와 부모 65(32.5%)명, 부모 30(15.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부모, 전문가의 협력 체계 하에 융통성 있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민주시민교육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대상
[Table 11] Object which has realistic influence 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다중응답(N=200)

구분	N(%)
아버지	152(76.0)
어머니	172(86.0)
형제, 자매	73(36.5)
조부모	51(25.5)
교사	150(75.0)
또래	97(48.5)
합계	200(100.0)

표 11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대상으로 어머니 172(86.0%), 아버지 152(76.0%)명, 교사 150(75.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와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와 교사의 협력 체제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유아의 적정 연령
[Table 12] Proper ages of young children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구분	N(%)
만 2세 미만	78(39.0)
만 2세	60(30.0)
만 3세	24(12.0)
만 4세	16(8.0)
만 5세	13(6.5)
초등학교 이후	9(4.5)
합계	200(100)

표 12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유아의 적정 연령에 대해 만 2세 미만 78(39.0%), 만 2세 60(30.0%)명, 만 3세 24(12.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시기가 아닌 영아기 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의 정보원
[Table 13] Informer of data collecting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구분	N(%)
국가수준 교·보육과정 활동자료집	52(26.0)
교사용 월간잡지	34(17.0)
전문서적	15(7.5)
대중매체	63(31.5)
교사연수	36(18.0)
합계	200(100.0)

표 13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의 정보원에 대해 대중매체 63(31.5%), 국가수준 교·보육과정 활동자료집 52(26.0%)명, 교사연수 36(18.0%), 교사용 월간잡지 34(17.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결과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요자원
[Table 14] Needful resource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구분	N(%)
지속적인 연수를 통한 재교육	50(25.0)
교사를 위한 지도서 및 교재	30(15.0)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와 지원	66(33.0)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	54(27.0)
합계	200(100.0)

표 14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요 자원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와 지원 66(33.0%),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 54(27.0%), 지속적인 연수를 통한 재교육 50(25.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많이 부족한 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5]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덕목
[Table 15] Virtues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덕목	복수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정직	76(38.0)	29(14.5)	10(5.0)
질서	20(10.0)	69(34.5)	23(11.5)
절제	1(5)	6(3.0)	16(8.0)
책임	3(1.5)	5(2.5)	31(15.5)
효도	2(1.0)	3(1.5)	13(6.5)
예절	18(9.0)	30(15.0)	25(12.5)
협동	10(5.0)	16(8.0)	15(7.5)
민주적 대화	1(5)	2(1.0)	2(1.0)
준법정신	2(1.0)	0(0)	3(1.5)
정의	0(0)	3(1.5)	3(1.5)
배려	4(2.0)	16(8.0)	14(7.0)
애국·애족	0(0)	0(0)	0(0)
평화·통일	0(0)	0(0)	0(0)
생명존중	6(3.0)	8(4.0)	11(5.5)
자연애	0(0)	1(5)	3(1.5)
사랑	57(28.5)	12(6.0)	31(15.5)
합계	200(100)	200(100)	200(100)

표 15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덕목에 대해 정직 76(38.0%), 질서 69(34.5%), 책임과 사랑 31(15.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과 질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반면 애국, 평화 및 통일은 중요하지 않은 덕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6]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가방법

[Table 16] Evaluation method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복수응답

구분	N(%)
관찰법(일화기록, 체크리스트)	165(83.0)
검사법(표준화 검사)	61(30.5)
면담법	92(46.0)
포트폴리오	41(20.5)
합계	200(100.0)

표 16과 같이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 관찰법 165(83.0%), 면담법 92(46.0%), 검사법 61(30.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에 의한 일화기록법, 체크리스트와 같은 관찰법을 다른 평가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7]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Table 17] Teaching-learning method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구분	N(%)
자기표현	139(69.5)
문제해결법	81(40.5)
추론하기	38(19.0)
모델링	96(48.0)
설명	15(7.5)
토의	19(9.5)
기타	12(6.0)
합계	200(100.0)

표 17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자기표현 139(69.5%), 모델링 96(48.0%), 문제해결법 81(40.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담당할 영유아는 다양한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표현과 모델링과 같은 방법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8]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유형

[Table 18] Type of educational activity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구분	N(%)
이야기나누기	122(61.0)
동화 및 동시	17(8.5)
동극	22(11.0)
게임	4(2.0)

동작과 노래	24(12.0)
조형	0(0)
견학	11(5.5)
합계	200(100.0)

표 18과 같이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22(61.0%), 동작과 노래 24(12.0%), 동극 22(11.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이 이야기나누기가 가장 적절한 교육활동유형으로 나타난 것은 교수자료 및 매체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시도하며 다른 활동유형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같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9]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집단구성

[Table 19] Forming of educational activity group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구분	N(%)
대집단	75(37.5)
중집단	30(15.0)
소집단	85(42.5)
개별활동	10(5.0)
합계	200(100.0)

표 19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집단구성에 대해 소집단 85(42.5%), 대집단 75(37.5%), 중집단 30(15.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나누기와 같은 교육활동 유형이 소집단, 대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용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결과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0]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일과시간

[Table 20] Time for daily task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구분	N(%)
등 하원 시간	10(5.0)
자유놀이시간	57(28.5)
이야기나누기시간	121(60.5)
게임시간	8(4.0)
작업시간	4(2.0)
정리정돈시간	0(0)
합계	200(100.0)

표 20과 같이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

한 교육활동 일과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21(60.5%), 자유놀이시간 57(28.5%), 등하원 시간 10(5.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교육활동유형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1]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주제
[Table 21] Acitivity theme for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다중응답(N=200)	
구분	N(%)
나와 어린이집 친구들	137(68.5)
나와 우리가족	137(68.5)
우리 동네	105(52.5)
동물과 식물	39(19.5)
건강과 안전	55(27.5)
생활도구	22(11.0)
교통기관	55(27.5)
우리나라	75(37.5)
세계 여러 나라	38(19.0)
환경과 생활	64(32.0)
봄, 여름, 가을, 겨울	35(17.5)
합계	200(100.0)

표 21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유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주제에 대해 나와 어린이집 친구들 137(68.5%), 나와 우리가족 137(68.5%), 우리 동네 105(52.5%), 우리나라 75(37.5%), 환경과 생활 64(32.0%)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가족, 지역사회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데 비해 세계 여러 나라, 계절, 생활도구와의 관련성에는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근무경력, 교사연령, 학력, 담당연령,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 발달에 미치는 민주시민교육의 영향력이 있어 보육교사들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교사들은 유아 지도시 주체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은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로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높게 보았으며 현대사회의 풍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 문항에 따라 빈도 차이를 보였으나,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장소로는 공공장소였다고, 적합한 교육담당자로는 교사, 부모, 전문가의 협력 형태를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영향력 있는 대상으로는 어머니, 교사, 아버지 순으로 인식하였고, 적정 연령으로는 만 2세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의 정보원은 대중매체, 국가수준 교·보육과정 활동자료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자원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와 지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덕목으로 정직, 질서, 책임, 사랑 순으로 인식하였고, 평가방법으로는 검사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자기표현, 교육활동유형으로는 이야기나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활동 집단구성으로는 소집단이, 교육활동 일과시간은 이야기나누기 시간이, 활동주제로는 나와 어린이집 친구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인식결과는 [5]와 [7]의 연구에서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 발달에 미치는 민주시민교육의 영향력이 있어 보육교사들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결과는 [5]의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가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도 발달 수준을 높게 인식한 것과 일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유아 지도 시 주체적 의 사결정능력 배양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유아 발달을 기초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연령, 학력, 기관유형과 같은 변인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로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경향을 보인 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전문성과 교사 학력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10]의 연구결과에 근거해본다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고, 이들의 재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때도 교육 대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의 연구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방법의 어려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지침이나 관리체계의 미흡, 자료나 적절한 교재, 교구의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줌으로써 민주 시민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현대사회의 풍조, 잘못된 교육관 및 인식 부족이라는 점에서 [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및 교사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오랫동안 출세 지향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 풍토가 지속되어 경쟁적이며 선두주자의 욕구충족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점도 민주사회의 발전이 더딘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사회적 풍조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 시민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나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5]에 의하면 2009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는 전체 연수의 10%의 비율을 보였지만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민주시민

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영유아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보육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교사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연수가 심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문항에 따라 빈도 차이를 보였으나,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적합한 장소 및 교육담당자로 공공장소에서의 부모, 교사, 전문가의 협력 형태를 우선시하였고, 교육의 적정기가 특정 시기가 아닌 영아기 부터 필요하다는 인식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며 이야기나누기와 같은 일반화된 교수형태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교수자료의 보급이 필요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교육활동형태나 평가방법, 교수자료 및 정보원, 활동주제에 대한 결과는 [5], [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유아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주로 다루어져야 하는 단위활동유형에서 자유선택활동과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유아 민주 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적절한 집단 유형도 소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사교육에 있어 보다 일반화된 교육활동의 형태와 교수자료를 구성하여 보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적합한 평가방법 역시 관찰을 통한 체크리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선행연구[7]과 일치한다.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관찰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발달에 기초한 평가준거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이 관찰법에 의한 평가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유아 민주시민교육 활동에서 적절한 교수전략형태로서 유치원 교사들은 토의와 문제해결법 순으로 인식 [5]한 반면 보육교사들은 자기표현과 모델링, 문제해결법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방과 습득을 반복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이 발달하므로 자기표현과 모델링을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아는 성장하면서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이 발달하고, 유아기는 영아기보다 이전의 경험들을 토대로 스스로 사고하고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토의와 문

제해결법을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의 정보원을 대중매체나 국가수준 교·보육과정 활동자료집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5]의 연구에서 97.2%가 교재, 교구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교수자료를 요구한 것에 반해 보육교사들은 필요자원으로 교사를 위한 지도서 및 교재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와 지원 가정과의 협력, 지속적인 연수 및 재교육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주제로 나와 어린이집 친구들, 나와 우리가족, 우리 동네 순으로 인식하는 것도 [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유아와 교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면 특정 주제와의 연계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낮은 인식을 보였던 세계 여러 나라, 계절, 생활도구와 같은 소주제와의 관련성을 찾아 민주시민교육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의 연구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부모, 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자원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둔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 보육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보육현장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유아를 둘러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영유아의 발달에 근거하여 근접한 실생활에서 영유아가 직접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전략형태나 자료수집의 정보원 측면에서 유치원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교육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예비교사, 현장교사, 전문가, 부모의 역할과 연계성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의 현장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와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영유아의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방법 및 교육자료가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유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보육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담당자를 부모와 전문가의 협력구조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기관만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명확하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및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The 2007 Revised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08.
- [2] Ministry of Education, Narae 21. November issue, 2010.
- [3] Kim Kyong Ae,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on the role performance of edu-care teacher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2000.
- [4] Kim KyuSoo, Kim Sookda, Ahn YeunKyeong, Kim HyunJoung, Shin SuHee, A Investigation Study on Kindergarten of Teachers Awareness of Reunification-education and Democratic Civic-education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9(1), 119-14, 2004.
- [5] Kim Sook Ja, Ko Jeong lee, An Investigation Study on Kindergarten Teachers' Awareness of Democratic Civic-deucation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191-215, 2004.
- [6] Kim Suk Ja, Kim Kyu Soo, Kwak Sang Sin, Seo Seong Mi, An Analysis of Teaching Behaviors related to Reunification and Democratic Public Education Practices in Korean Urban and Rural Region Kindergarte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0(3),

- 57-82, 2003.
- [7] Kim Young Ok, Choi Mi Sook, A Study on Contents Method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Early Childhood Citizenship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39-58, 1995.
- [8] Kim Yong Sook,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rogram Model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Kindergarten..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 Nam University, 2004.
- [9] Kim, Jung Hee, Moon, Hyuk Jun,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Child Care Teachers' Perceptions of Empowerment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5), 445-466, 2001.
- [10] Park Kyung Ja, Kim, Song Yi, Kwon Yeon Hee,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theory to practice. joint translation. Seoul: kyomunsa, 2005.
-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th National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 [12] Seol Kyu Joo, The Rise of Global Civil Society and the Orientation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 43(4), 31-5. 2004.
- [13] Ok Il Nam, A case Study on Civic Education in an American Famil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2(2), 119-156, 2010.
- [14] Choi Suk Ran,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Global Age.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18, 187-206, 2011.
- [15] Choi Ji Uoon, The Democracy citizen education and teacher-training. *Korea Democracy Foundation*, 72-77, 2009.
- [16] Hong Young Hee, The Establishment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ge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55, 259-28, 2004.
- [17] Baumrind, D. *Child Maltreatment and Optimal Care-giving in Social Context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5.
- [18] Devine, D., Children's citizenship and the structuring of adult-child relations in the primary school. *Childhood: A Global Journal of Child Research*, 9(3), 303-320, 2002.
- [19] Honig, A. S. & Wittmer, D. S., Helping children become more prosocial: Ideas for classrooms,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Young Children*, 51(2), 62-70, 1996.
- [20] Kohn, A., *Beyond Discipline: From Compliance to Community*. Alexandria. Virg.: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6.

- [21] Michaelis, G., Politic education and its role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local self-government, August issue, 3, 1997.
- [22] Roche, J., Children: Rights,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Childhood: A Global Journal of Child Research*, 6(4), 475-493, 1999.
- [23] Vasta, R., Haith, M. M. & Miller, S. A., *Child Psychology*(3rd ed). New York: Wiley, 1998.

김 용 숙(Kim-Yong Sook)

[정회원]



- 1996년 2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 석사
- 2004년 8월 :한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1996년 3월 ~ 2002년 2월 : 우석유치원 · 우석어린이집 원장
- 200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과정, 유아사회교육